

이야기 6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주제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누가복음 5:24]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작은 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소식이 온 마을에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몸을 돌리기도 어려울 정도였답니다. 그때,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네 친구가 들것에 실어 데리고 왔어요.

그들은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꼭 보여 드리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친구들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아픈 친구를 들것째로 집 지붕 위로 올렸어요.

그 사이 예수님은 여전히 집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지붕 위에서 들것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시던 말씀을 멈추시고, 자신의 앞에 내려오는 들것을 바라보셨어요.

중풍병자는 사람들 한가운데, 바로 예수님 앞에 내려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은 스마일~~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렴. 너의 죄가 용서받았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네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던 그 사람이 기적처럼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것을 들고 두 발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모두 크게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빈칸을 채운 뒤 암송해 보세요. (누가복음 5:24)

…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하시매

활동 1

활동 1 질문을 읽고 맞는 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세요.

질문을 읽고 맞는 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세요.

1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나요?

교회

공원

집

2 몇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나요?

세명

네명

일곱명

3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기 위해 어디를 통해 들어갔나요?

지붕

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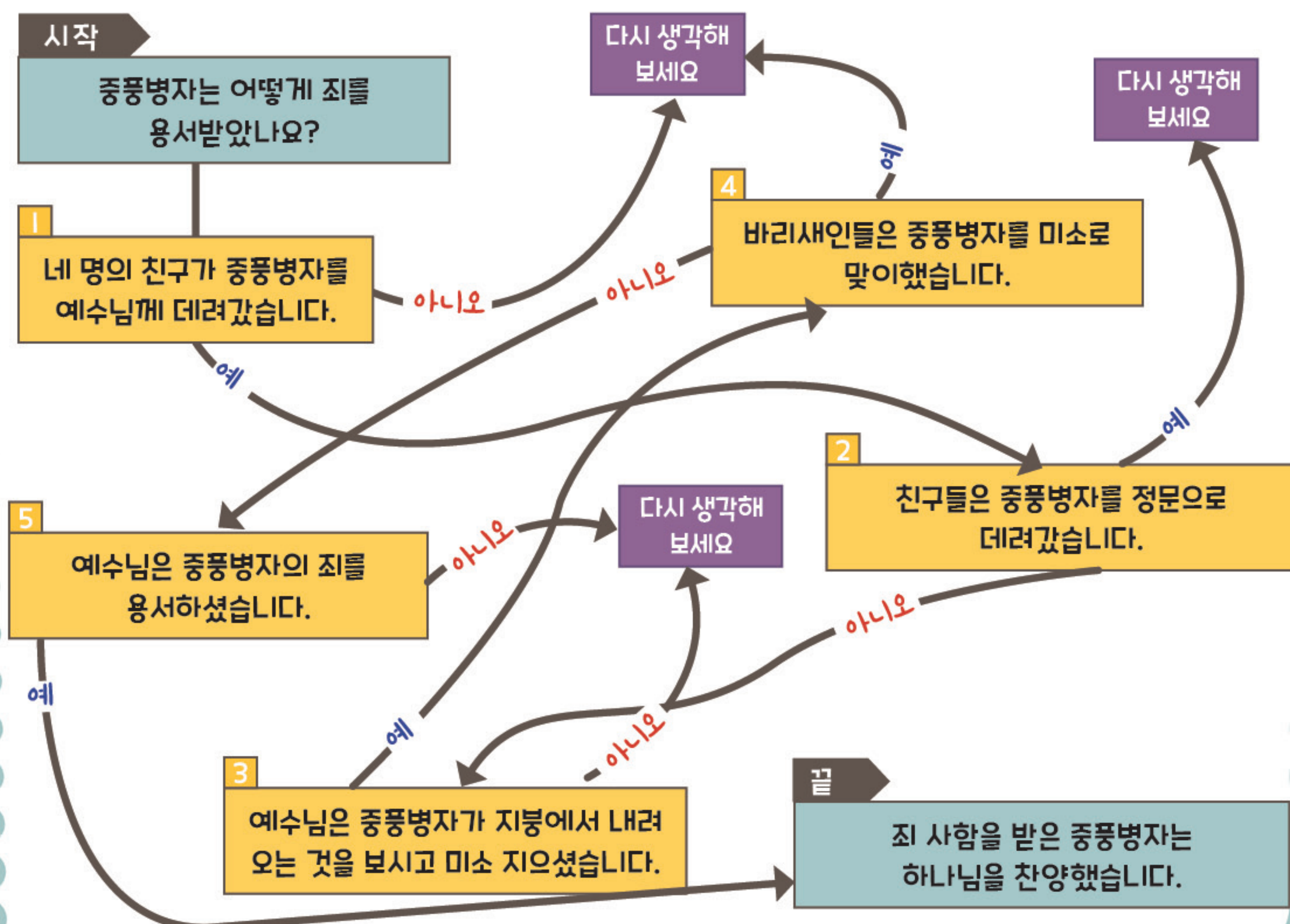
창문

합동 2

예수님께서 아픈 친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배워봅시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예' 또는 '아니오' 중에서 선택하세요. 틀린 답을 선택하면,

돌아가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활동 3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 1 A, B를 오린다.
- 2 점선A가 적힌 네모 칸을 오린다.
- 3 점선을 따라 안쪽으로 접는다.
- 4 '폴칠' 부분에 폴로 칠하고 양쪽을 겹쳐서 입체적으로 붙인다.
- 5 B를 미리 오려둔 점선A 네모 칸 안으로 넣어 내려갈 수 있도록 걸어둔다.
- 6 아픈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올 것을 믿었던 친구들의 믿음을 기억한다.



완성된 이미지
→



준비물: 가위, 커터칼(칼은 선생님만 사용합니다), 폴.

A

